

## 특허청, 김기호 특허심판원장 승진

정부는 10월14일 특허청의 1급(관리관) 직위인 특허심판원장에 김기호(52) 특허심판원 제6부 심판장을 승진 발령했다.



신임 김기호 특허심판원장은 경기도가 고향으로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기계공학과와 한양대 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및 산업대학원 공업경영학과(석사)를 졸업하고 영국 Exeter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, 1975년 제11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특허청 심사2국 심사관, 심사2국 금속·원동기계·자동차·정밀기계 심사담당관, 특허심판원 제6부 심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.

특히, 2001년 1월1일부터 2005년 10월13일까지 특허심판원 제6부 심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특허·실용신안 기계금속·건설 분야에서 4년9개월 동안 평균 154%의 심판실적을 초과 달성했고,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해 우선심판 처리절차 등 15여건의 심판관련 절차 및 심판제도 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.

신임 김기호 원장은 “특허분쟁의 신속·정확·공정한 해결과 심사품질 향상의 Key 역할을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겠다”고 비전을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5/10/14>